

# 코스닥 상장법인 1000원 룰아 겨우 32원 남겨

[뉴스2 2007-11-22 17:07]

【대구=뉴스2】

대구경북지역 코스닥 상장법인들은 지난 3분기 동안 1000원 어치를 받아 고작 32.23원의 이익을 남겨, 코스닥 상장법인들은 지난 3분기 동안 155.45원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거래소 대구사무소가 올해 3/4분기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 실적은 집계한 결과 유가증권 상장 상장법인은 대체로 실적 호조를 보인 반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9사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평균 3.1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11%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0.40% 감소했다.

그러나 3분기까지의 누적실적은 매출액(12.76%), 영업이익(20.96%), 순이익(30.28%) 모두 특어 호조를 보였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57사의 3분기 중 실적은 매출액은 1.9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2.08%)과 순이익(△60.36%)은 감소했고, 누적실적은 매출액(△1.41%), 영업이익(△56.49%), 순이익(△93.39%) 모두 감소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매출액 1000원당 영업이익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평균 155.45원으로 전년 동기(155.30원)보다 소폭 특어났지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32.23원으로 전년 동기(33.55원)보다 감소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가운데 3분기까지 누적실적 가운데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C8우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78%나 급증했다.

그 뒤를 이어 평화산업(93.46%↑), 헬라인(52.77%↑), 원대금속(35.18%↑), 샤프트레이크(20.93%↑), 대구은행(19.68%↑), 포항강관(19.28%↑), 포스코(14.62%↑), 동원산업(14.40%↑), 대호에이(11.53%↓) 순이었다.

영업이익은 샤프트레이크, 동원산업, 대동운업, 대호에이원, 제형연마, 포스코, 대구은행, 제형모직, 헬라인, 새한, C8우방 순으로 호조를 보였다.

순이익은 동원산업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대호에이원, 제형연마, 대동운업, 포스코, 화산, 대구은행, 헬라인, 제형모직, 샤프트레이크, C8우방, C8우방랜드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스탁시장 상장법인 가운데 매출액 호조기업은 일반기업으로는 동신건설  
력이 우수했고 벤처기업으로는 시노펙스, JVM, 태양기전 순으로 호조를 보


영업이익은 일반기업 중에는 푸드웰, 흥센타, 대진공업, 소디프신소재, 구  
왔고 벤처기업은 시노펙스, 미광콘택트, IDH, JVM, 태양기전 순이었다.


이밖에 순이익 호조기업은 일반기업으로는 동신건설, 흥센타, 삼성피앤에  
순으로, 벤처기업은 케너텍, 시노펙스, 미광콘택트, 태양기전, IDH 순으  
다.

우성문기자 ws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3&article](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3&article)

 인쇄하기

 닫기